

떠나지 않았네. 자기 가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즐거워지기를 바랐던 게야. 비르지니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돌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행복을 가꾸지 못하는 법이요”라고 말하곤 했네. 놀러 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면, 마음에 드는 것이 보이거든 가져가라고 권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는 선물을 냉큼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한 처지를 새롭다느니 독특하다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덮어버렸네. 그들의 옷이 너무 심하게 해져 있는 것이 눈에 띄면, 비르지니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자기가 가진 옷 중에 몇 개를 골라 놓고, 폴에게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 가서 문 앞에 몰래 두고 오라는 임무를 맡겼어. 이렇듯 비르지니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을 행했으니, 행하는 자를 감추어 그 선행을 보게 함이었네.

당신네 유럽인들은 유년시절부터 행복에 반하는 술한 편견으로 그 정신을 가득 채워왔으니, 자연이 이처럼 밝은 빛과 이처럼 커다란 기쁨을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걸세. 자네의 영혼은 인간의 얇이라는 하나의 작은 영역에 국한되고, 머지않아 그 영역에 갇힌 인위적 쾌락의 끝에 도달하게 마련이지. 그러나 자연과 마음이란 고갈되지 않는 한없는 것이야. 폴과 비르지니에게는 시계도 책력도 없었고, 연대학 책이니 역사서니 철학서니 하는 것도 없었네. 두 아이의 삶의 주기는 자연의 절기를 그대로 따랐지. 나무 그림자로 하루의 시간을 알았고, 꽃이나 열매가 주어